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1929년 이후 변화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변화기는 방향전환을 통해 얘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방향전환을 야기한 해체논의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 주도했고, 내용에서는 일본공산당과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⁷⁵⁾이 선도했다. 특히 김두용, 이의석, 김호영 등은 1929년 9월부터 전협의 지도 아래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내에서 해체논의와 해체투쟁을 전개했다.

당시 해체를 주도한 사람들은 프로핀테른의 지도에 따라 우선 재일한인 민족운동을 전면 부정했다. 이것은 재일한인의 정서와 상태, 그리고 재일한인 민족운동 진영의 투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논리였다. 방향전환으로 재일한인 노동운동을 몰고 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해체논의는 일본지역 대중단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일본조선청년동맹, 학우회도 해소를 결정했다. 이에 연동하여 신간회 동경지회도 자연 소멸되었다. 결국 대중단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했던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은 일본공산당의 지도로 1931년 10월 해체를 결정했다.⁷⁶⁾ 그리고 12월 23일 『赤旗』를 통해 해체성명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러한 프로핀테른의 지도 아래 전협이 주도한 해체논의는 이전까지 전개되었던 재일한인 노동자들의 각종 투쟁을 뒤흔들어 버렸다. 따라서 일본지역 재일한인 민족운동의 방향전환을 추동한 프로핀테른의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전협으로의 재편에 대한 지시는 계속적으로 발전한 재일한인 노동운동과 민족운동을 시야에 넣지 못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단위 민족별 노동자의 독자성을 무시한 프로핀테른의 일방적인 시각은 자유노동자 중심의 재일한인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약화시켰다.

그런가 하면 1930년 재일조선인 유학생 내에도 일국일당주의 원칙이 투영되었다. 학우회의 1930년 정기대회에서는 12대 9로 공산주의계가 논쟁에서 승리했다. 결국 학우회는 1931년 2월 해체되었다. 그 해체 선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현 단계에 있어 어떠한 운동이든지 계급적 입장을 망각한 것은 올바른 운동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물론 현재는 어떠한 운동이든지 혁명운동이라면 필연적으로 참된 세력에 의해서 추진되어진다.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피압박민족과 프롤레타리아의 공동의 적인 자본주의 제3기에 있어 혁명운동은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발전한다.»⁷⁷⁾

학우회의 해체선언은 조선혁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민족해방운동의 한 축인 재일유학생운동을 일본인 학생운동 속에 매몰시킬 것을 주장했다. 학우회가 해체되자, 재일조선인 유학생운동은 각 학교 별 조선인 유학생동창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동창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은 민족 독립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학생운동으로 합류하지 않았다.

학우회 해체 이후 재일조선인 유학생운동은 침체되어 갔다. 그것은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민테른의 일국일당주의 원칙에 의해 재일조선인 운동을 일본인운동 속으로 매몰시켜 버렸던 혁명노선의 전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⁷⁸⁾

75) 이하 전협으로 줄인다.

76)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1996, 국학자료원. 302쪽.

77) 鄭哲, 『在日韓國人の民族運動』, 洋洋社, 1970, 340-341쪽.

78)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301쪽.

2. 일본 사회운동 속의 재일한인 민족운동

1929년 이후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일본 사회운동 속에서 이중적 임무를 띠고 전개된 형태와 일본 사회운동과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사회운동 속의 활동을 보면, 먼저 일본공산당 조직 내로 재일한인 공산주의자들은 대거 들어간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931년 10월에 조선공산당 일본총국과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를 해체시키고 난 뒤 재일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일본공산당 세포에 속하여 일본공산당원으로서의 당적을 갖게 되었고, 일본공산당에서는 민족부를 설치하여 여기에 부응했다.

실제로 1931년 5월 일본공산당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당에 민족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재일한인 당원 등의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한 결의사항은 일본공산당 지방위원회에 까지 효력이 발생되었고, 일본공산당 중앙과 지방당 조직에 재일한인이 대거 가담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⁷⁹⁾

일본공산당 중앙의 경우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회⁸⁰⁾의 책임자인 김치정을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선부 책임자로 선정하고, 당 선전선동부원에 조희준, 인쇄국원에 오설준·이선준을 각각 선정했다.⁸¹⁾ 그 뒤 임동춘이 중앙당 인쇄국원으로 선정되어 배준걸·박선규 등과 함께 『赤旗』 발행을 담당했다.

1930년대 초 일본공산당은 재일한인 당원을 중앙당에 몇 사람의 간부를 배치하는 외에는 지방당 조직에 약간의 중간 간부와 말단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게 만들었다.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재일한인 당원이 최고 간부의 지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일본이라는 지역적 제약성 때문에 그들의 활동에는 많은 오해와 저해 요인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일본공산당은 1933년 대판에 관서지방위원회와 대판시위원회를 두었다. 따라서 한인당원에 대한 공작도 대판을 심으로 하여 관서지방 일대에 걸친 지도를 했다. 또한 일본공산당은 兵庫지방위원회와 神戸시위원회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한인당원 공작에 주력했다. 여기에는 兵庫의 한인사회가 노동인구로 과밀한데 주목한 일본공산당의 전술 때문이었다.

이렇게 일본공산당의 각 지방당 조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은 동경, 교토, 대판, 고베(神戸) 등지와 재일한인이 비교적 다수로 거주하는 愛知, 福岡, 山口, 廣島 등을 비롯한 지역의 재일한인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내 선행 연구에서 이미 알려져 있듯이 일본 노동운동에 있어 1930년대 전투적 투쟁은 전협이 주도했다.⁸²⁾ 여기에 산하 조직으로 조선인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재일한인에 대한 특별 조직이었다. 재일조선노동총동맹은 조직적으로 해체하고, 이후 전협 조선인위원회의 지령 아래 산업별 재조직 투쟁을 계속했다.⁸³⁾

79) 김인덕, 「제1부 1920년대 이후 일본지역 민족운동」, 김인덕·김도형,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시아 지역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44-146쪽.

80) 坪江汕二, 『改訂 増補 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 高麗書林, 1986, 337쪽.

81) 전준, 『조총련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254쪽.

82) 김광열, 「1930년대 일본 혁신노동조합의 한인조합원운동-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23), 2006, 참조.

전협 조선인위원회는 당면한 현실에 있어 조합이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어 있고, 반의 활동도 추상적인 교육활동에 제한되어 있으며, 조합의 간부도 조직 내에서만 활동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신 운동방침을 제기했다.

전술한 것처럼 재일한인 민족운동의 해체운동은 실제로 재조직 재건투쟁주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조선노동조합 해체를 주도한 조선인위원회는 지령, 기관지, 뉴스 등을 발행하여 가맹조합의 해체를 일상투쟁과 결합시켜서 해체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와 함께 재일한인 노동운동 세력도 재편되어 갔다. 1930년 4월이 되면 동경조선노동조합 산하의 대부분의 조직과 京都, 重縣조선노동조합은 해체되어 산업별 조합으로 재편성되었다. 이후 전협 산하의 산별 조직에 다수의 조선인이 들어갔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조직이 전협 산하 일본토목건축노동조합이다.⁸⁴⁾ 여기에는 다수의 조선인이 가입하는데, 재일조선노동총동맹이 전협으로 해소하고 산업별로 조직되는 가운데 강력한 조직적 역량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는 재일한인의 역할이 지대했다.

지역 단위 주요 조직으로는 東京·大阪·神奈川·山梨·富山지부 등이 있었다. 동경지부는 일본 토목건축노동조합의 전국적 결성을 계기로 관동자유노동조합이 해소, 흡수되어 조직된 것으로 1931년 10월말에는 조합원 700명의 조합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 재일한인이 500명이었다. 1932년 말에는 약 1,000명의 조합원 가운데 재일한인이 930명에 달하여 지부의 주도권을 재일한인이 장악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의 프롤레타리아예술단체 전일본무산자예술단체협의회⁸⁵⁾는 1930년 10월 프로핀테른 제5회 대회의 「프로레타리아 문화-교육조직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테제에 따라 예술 및 문화운동의 방향전환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1931년 11월 24일에 일본프롤레타리아문화연맹⁸⁶⁾이 결성되었다.⁸⁷⁾

1932년 2월 코프 중앙협의회 서기국은 조선협의회 설치를 결정했다.⁸⁸⁾ 이 조선협의회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두었다. 조선협의회는 재일한인 노동자를 문화를 통하여 획득하여 전동맹의 활동을 통일시킴을 제1의 목적으로 했고, 카프의 확대 강화에 따라서 조선프롤레타리아문화연맹의 확립을 위해 조선 내의 문화단체, 클럽을 원조함을 제2의 목적으로 했다.

조선협의회는 반파시즘의 문화투쟁을 통해 재일한인 노동자를 조직하고, 일본인 노동자에게 조선문제를 소개하여 관심을 고양시키며 조일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제휴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첫째 조직의 확대를 도모했고, 둘째로 기관지 『우리동무』를 통해 선전, 선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며, 셋째 산하 조직을 통한 적극적인 반제 반파시즘투쟁을 전개했다.

83) 김인덕, 「1930년대 진보적 일본노동운동과 재일조선인 국제연대-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사림』(29), 2008, 30쪽.

84) 김인덕, 「1930년대 진보적 일본노동운동과 재일조선인 국제연대-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사림』(29), 2008, 37쪽.

85) 이하 나프로 줄인다.

86) 이하 코프로 줄인다.

87)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8·15解放前-』, 三一書房, 1979, 275쪽.

88) 김인덕, 「제1부 1920년대 이후 일본지역 민족운동」, 김인덕·김도형,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시아 지역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63쪽.

일본에서 반제운동이 현실운동에서 조직적인 내용을 가져간 것은 1927년 5월 31일 조직된 대지비간섭동맹이다. 조직 이후 이 단체는 전쟁반대동맹으로 개조되었는데, 전쟁반대동맹은 1929년 11월 27일에 反帝國主義民族獨立支持同盟 日本支部로 되고, 마침내 日本反帝同盟이 되었다. 이 일본반제동맹이 1930년대 재일한인 운동의 축이 되었다.

이와 함께 재일한인은 적극적으로 일본반제동맹에 가입해 활동했다. 재일한인 좌익과 인텔리층은 민족주의운동의 무력함에 한계를 느끼고 여기에 가입했다. 재일한인은 일본반제동맹이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민족·사회적 혁명을 재정·정치적으로 원조할 것이라는 내용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이에 따라 재일한인은 조직의 선두에 섰던 것이다. 결국 일본반제동맹 구성원의 60-70%는 재일한인이 차지했던 기록도 확인된다.

그런가 하면 재일한인의 당재건운동 차원의 조직운동으로는 노동계급사와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회 일본출판부의 경우를 들 수 있다.⁸⁹⁾ 이 두 단체는 일본 내의 조직적 기반을 갖고 국내로의 지속적인 조직원의 파견을 통한 조직의 확대 발전을 도모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일본공산당의 지도와 지원 아래 투쟁을 전개했다. 핵심적인 구성원은 김치정, 김두정, 문용하, 박경호 등이었다.

3. 독자적인 재일한인 민족운동

1930년대 재일한인 민족운동에서 민족주의적 경향을 띤 조직운동으로 주목되는 것은 동아통항조합의 자주운항운동이다. 이것은 대판 제주인이 중심이 되어 제주를 위한 독자적인 운동이었다.⁹⁰⁾ 그 역사는 1920년대 이후부터 살펴 볼 수 있다.

1923년 12월 15일 제주와 대판 사이에는 직항로가 개설되었다. 이 항로는 직항로가 개설된 이래 朝鮮郵船과 尼崎汽船 등이 독점적으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1928년이 되자 이들 선박업자들은 배삯을 전격적으로 대폭 인상했다. 장사가 됴므로 이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고, 일제도 이것을 묵인했던 것이다.

배 삯 인상은 제주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도민들은 1928년 4월 자유 도일과 운임 인하를 요구하는 대회를 열고 배 삯을 내리도록 선박 회사에 요구했다. 당연히 그들은 배 삯 인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신간회 대판지회는 天王寺공회당에서 제주도민 대회를 열고, 배삯 인하와 승객에 대한 대우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교섭했으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했다.

대판 지역 재일한인 사회의 리더로 지역의 운동을 주도했던 고순흠과는 달리 제주도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소비조합을 만들어 조합이 직접 선박을 운영할 것을 계획한 사람은 대판지역 제주인의 중심 김문준이었다. 그는 1929년 4월 제주도민 유지 간담회를 열고 제주통항조합준비회를 조직할 것을 가결시켰다. 그 후 김문준의 뒤를 이은 것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에서 활동하다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 전협으로서의 해소 후 전협에 가맹치 않았던 문창래, 김달준, 현길홍 등이었다. 그들은 '우리는 우리 배로' 라는 구호를 걸고 조합 결성을 위해 활동하며, 기관지로 『뉴스(ニュース)』를 발행했다.⁹¹⁾

8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한다. (김인덕,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회 일본출판부의 조직과 활동」, 『한일민족문제연구』(3), 2002.)

90) 김인덕, 「1920년대 후반 재일제주인의 민족해방운동」,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참조.

마침내 대판의 제주인 4,500명을 조직한 준비회는 1930년 4월 21일에 대판의 中之島公會당에서 421명의 대의원과 2,0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었다.⁹²⁾ 이 자리에서는 조합의 명칭을 고쳤고 강령을 내걸었다. 이 동아통항조합은 창립대회 이후 개인 가입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120개 지구가 참가해 조합원도 10,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제주인은 독자성을 확보하며 경제적인 실리의 추구에도 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국내 다른 지역 출신에게서는 보기 힘든 집단적인 움직임이었다.

1930년대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대중 선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1934년 12월 16일 조선신문사를 이운수, 박태을, 김천해, 전윤필 등이 합법적인 투쟁을 위해 조직했다.⁹³⁾

이 조직은 주요한 사업의 내용을 사원회의에서 결의했다. 1936년 2월 10일 제1회 사원 전체회의는 우선 발매 금지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족의식을 양양하기 위해 재일한인 교육문제, 조선어 쇠퇴문제, 공학문제, 도항문제, 차별대우문제, 주택문제 등을 취급하며, 계급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취직문제, 실업문제, 일상생활문제, 노동문제 등을 준비했다.

조선신문사의 활동을 크게 대분하면 조직의 확대와 신문의 발간이라고 할 수 있다. 1936년 7월말 구성원이 검거되어 조선신문사의 활동이 종결되었다.

조선신문사와 함께 재일한인 조직으로 대중 선전지를 발간한 투쟁조직으로는 민중시보사를 들 수 있다. 『民衆時報』는 1935년 6월 창간되어 김문준, 이신형이 주간을 맡았다. 조선민중의 생활개선과 문화적 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강령에서 내걸었다.⁹⁴⁾ 특히 재일한인의 생활권 옹호를 위해 건강 상담, 법률 상담, 생활상의 지침을 널리 선동했다. 의료위생, 법률상담, 공동구입 등은 같은 시기의 소비조합, 친목회 등의 활동을 지면으로 옮겨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들이 생활권투쟁에 힘을 쏟았던 것은 공산주의운동의 태도변화 그리고 패배, 생활난과 배외주의의 강화, 동화정책의 본격화를 배경으로 했다. 마침내 1936년 9월21일 27호로 『민중시보』는 폐간당하고 말았다.

1930년대의 재일한인 민족운동사에서 의열투쟁으로 주목되는 것은 이봉창의거이다.⁹⁵⁾ 이봉창은 1932년 1월 8일 일왕 裕仁이 觀兵式場에서 櫻田門 밖의 경시청 청사 앞으로 지날 때 수류탄을 던졌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하고 체포되어 9월에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8일 순국했다.

4. 강제연행과 재일한인의 민족운동

일제시대 ‘조선인’은 일제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 이들은 일본 뿐만 아니라 만주, 사할린, 남양군도, 남방지역으로 끌려갔다.⁹⁶⁾

91)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8·15解放前-』, 三一書房, 1979, 273쪽.

92) 梁永厚, 『前後-大阪の朝鮮人運動-1945-1965』, 東京, 未來社, 1994, 28쪽.

93) 김인덕, 「제1부 1920년대 이후 일본지역 민족운동」, 김인덕·김도형,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시아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67쪽.

94) 外村大, 「1930年代中期の在日朝鮮人運動-京阪神地域『民衆時報』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28), 1991. 3, 95쪽.

95) 이현희, 『이봉창의사의 항일투쟁』, 국학자료원, 1997, 참조.

이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는 전술했듯이, 연행방식에 따라 모집, 관알선, 징병, 징용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⁹⁷⁾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모집단계에서부터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 그 하부 조직이 강제연행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이 노예노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⁹⁸⁾

한편 강제연행 대상자가 일반 징용으로 징용 영장을 받고 이에 불응할 때는 국가총동원법 제3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9년부터 1945년 3월까지 강제연행된 조선인 중에 약 22만 명이 도주했다. 도주 시기는 연행되어 약 6개월이 된 시점이 최고로 그 수가 많았고, 일반적으로 3·4·5월과 9·10월이 많았다. 도주의 원인은 모집조건에 대한 불만, 임금 및 작업시간에 대한 불만, 작업의 어려움, 식량문제 등이었다.

『特高月報』에 의하면, 1939년 이후 筑豊炭鑛에서의 조선인 광부에 관한 사건은 스트라이크 6건, 태업 12건, 집단폭행 30건으로, 대규모 사건만도 48건이나 되었다. 작은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탄광을 비롯한 일본의 산업현장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저항한 가장 큰 이유는 일인 감독자 및 노동자의 민족적 차별과 인격적 모욕이었다.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들의 저항수단은 시위나 직접 행동이 24%인데 반해, 파업과 태업이 54%를 넘어 폭력적 저항 보다 상대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저항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¹⁰⁰⁾

그런가 하면 도망하다가 잡히는 경우는 죽음의 린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경우는 합숙소 바로 옆의 감나무 가지에 로프로 두발을 매어 거꾸로 매달고는 입에 호스로 물을 처넣기도 하고 항문으로 넣었다. 그리고 쇠몽둥이로 때려 손발의 뼈가 푹푹 부러지는 소리가 날 정도였다. 린치를 당하여 정신이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상습적인 도망자도 있었는데, 노무계 사무소의 앞에 이름을 게시하고 전원이 보는 앞에서 노무계가 돌아가면서 망나니 노릇을 해 목도가 부러지면 삽으로 때렸다.¹⁰¹⁾

강제연행에 의해 끌려간 조선인은 무기력하게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에 무능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탄압과 저항에 대해 태업, 파업, 폭동 등과 노동을 기피해 도주한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 재일유학생 운동의 변화

1931년 학우회의 해체선언 이후 재일한인 유학생의 운동은 학교 단위의 동창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일본의 중앙대 유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우회의 재건에 대해 논의가 전개되어, 1935년부터는 구체적인 모임이 마련되어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연합축구대회와 연합송별회 등의 자리는 전선통일의 기회로 적극 활용되어 시국문제에 대한 토론과 비판의 자리가 되었다.¹⁰²⁾

96) 김인덕, 『강제연행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3, 43쪽.

97) 한일문제연구원,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7백만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 아세아문화사, 1995, 28-29쪽.

98)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社, 1965, 참조.

99) 김대상, 『일제하 강제인력수탈사』, 정음사, 1981, 96쪽.

100) 강만길, 「침략전쟁기 일본에 강제동원된 조선노동자의 저항」, 『한국사학보』(2), 1997, 3, 262-263쪽.

101) 하야시에이다이 저, 신정식 역, 『일제의 조선인노동 강제수탈사』, 비봉출판사, 1982, 148쪽.

102) 「日本における朝鮮人民族主義運動」,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III), 原書房, 646쪽.

1930년대 후반 재일유학생의 주목되는 운동을 보면, 1936년 明治大學의 조선유학생연구회사건, 名古屋의 민족부흥회사건, 東京의 평안그룹사건 등이 있었다.

아울러 1940년대의 경우도 부단히 소그룹별 운동은 지속되는데, 早大유학생그룹, 1940년 名古屋의 민족주의그룹사건, 1943년의 東京의 우리독립운동그룹사건, 이밖에도 大阪과 神戸 등지에서 계림동지회, 조선인민족주의사건, 전진회사건, 민족주의집단충성회사건, 조선학생민족주의집단사건, 조선인직공민족주의집단사건 등과 사고조선청년막스주의연구회가 있었다.

1) 조선유학생연학회

1936년 우삼홍, 박용칠, 서재철 등 재일유학생은 동인사를 조직하고 6월 25일 조선유학생연학회¹⁰³⁾를 조직했다. 형적인 연락기관으로 출범한 이 조직¹⁰⁴⁾은 외형적으로는 “재경 일반 조선인 학생들의 학술 연구와 연격 함양”이라고 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독립 열망의 기운을 촉진하고 학술, 정치적으로 반일 세력을 통일 지도하여 광범위한 ‘반일 세력’의 결성을 목적으로 했다.¹⁰⁵⁾

그리고 연학회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분산된 학생의 힘을 조직화하고 새로운 운동방침인 인민전선 형태로 목적 달성을 추구할 것을 생각했다. 또한 이 조직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의한 정부의 수립과 공산사회의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상정했다.¹⁰⁶⁾

이 조직은 최고 의결 기구로 총회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총무, 서무, 연구, 재정, 조사부를 두고 연구부 산하에는 정경반, 법률반, 사학반, 예술반을 설치했다. 그리고 서무부 아래 연합뉴스편집팀을 운영했다. 주요 사업은 회지의 발행, 연구발표회, 좌담회와 토론회, 학자초빙회 등이었다.

1938년 1월 박용칠, 서재철, 김정태 등이 검거되자 연학회의 활동 끝났다. 이후 우삼홍이 계속 활동했으나 그도 검거된다.¹⁰⁷⁾ 이후 재일유학생 운동은 전술했듯이 각 학교 단위, 사상서클 단위, 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2) 사고(四高)조선청년막스주의연구회

1941년 2월 조옥래, 박응포, 최동명, 金城基億, 金山和琪 등은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기 위해 사고조선청년막스주의연구회¹⁰⁸⁾를 조직했다.

조직의 리더 박응포는 공산주의관련 서적을 탐독한 후 자본주의 아래에서의 빈부의 격차가 보다 심화될 것과 노동자와 농민은 자본가의 착취의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임을 인식했다. 이와 함께 조선의 노동자 농민의 경우는 일본 내의 노동자, 농민의 처지 보다 열악하다고 전제하고, 조선동포의 구제의 길은 공산주의 사회의 실행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면서 적극적인 선전, 선동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가운데 1941

103) 이하 연학회로 칭하다.

104) 「조선인유학생연학회」,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3), 160쪽.

105) 「조선인유학생연학회」,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3), 162쪽.

106)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8.15解放前-』, 三一書房, 1979, 288쪽.

107) 「조선인유학생연학회」,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3), 163쪽.

108)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4-2),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4).

년 2월 조옥래가 박응포에게 마르크스주의 독서연구회의 조직을 제안하고, 여기에 전술한 최동명, 金城基億, 金山和琪이 가담하여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富山고등학교의 최정률과 富山약학전문학교 노성완 등과 연계를 갖기도 했다.

박응포가 주도한 이 조직은 약칭을 C.Y.M.S(조선청년마르크스주의연구회)로 하고 조선의 사회혁명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주 1회 토요일 독서회, 조선 출신 유학생으로 전원의 승인 아래 가입, 월 1원의 회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회원은 각자의 번호를 가졌다. 1에서 5호까지의 번호는 박응포, 최동명, 조옥래, 金山和琪, 金城基億 순이었다.

아울러 본부를 金澤에 두고 東京에 조직원이 이동할 때는 東京에도 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독서회의 경우 교재를 河上肇의 『近世經濟思想史』를 사용했는데, 전술한 조직원 5명 이외에 장차 조용달, 原山薰, 泉昇煥 등을 참가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일상적인 유학생들의 모임인 독서회, 환송회, 환영회 등을 적극적인 선전, 선동의 장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창시개명의 문제, 언어의 문제, 의무교육제의 문제, 납세의 문제, 지원병제도의 문제 등과 사회주의적 방식으로의 독립의 길, 민족적 차별이 없는 러시아의 상황, 중일전쟁의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3) 早大유학생그룹

1930년대 후반 早稻田大學 내의 우리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적 유학생그룹으로 早大유학생그룹¹⁰⁹⁾이 조직되었다.

早稻田大學에는 早大우리동창회가 있어 학생운동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조직은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며 유지되어 오다가 1937년 고준석을 대표로 송군찬, 전덕연, 김경희, 이성우 등이 주도했다. 이후 早大우리동창회는 조선공산당과 일본공산당 재건의 한 부대로 그 역할을 수행했다.

早大 유학생들의 활동은 東京을 비롯해 大阪에서도 전개되었는데, 고준석은 조직의 확대를 위해 1938년 1월 大阪에서 홍문중, 김인택 등과 모임을 갖고 상호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또한 고준석, 송군찬, 황병인 등은 早大社會事情研究會에 가입하여 일본인 학생들과도 이론적 교류를 갖으며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고준석은 이 모임의 간사를 맡아 회를 선도했다.

早大 유학생들의 활동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공산당 재건에 관계한 것이었다. 1938년 5월부터 고준석, 송군찬, 황병인, 박천석, 황봉노 등은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비합법적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이청원과 연락하며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이 작성한 문건은 「조선혁명론」, 「조선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운동의 과거와 장래」, 「조선사회운동약사와 금후의 전망」 등이었다. 이 문건들은 독서회의 교과서가 되어 조선혁명의 이론적 지침서의 역할을 했다.

이상과 같은 이들 혁명적 전위들의 활동은 東京 내 다양한 유학생 조직을 획득했는데, 法政大學에서는 박노섭, 박제섭, 윤수동, 윤감모, 송군섭, 양정봉 등을 결집시켜 조선문제연구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109)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韓國留學生運動史-早稻田大學우리同窓會70年史-』, 早稻田大學우리同窓會, 1976.

V. 결론

재일한인의 민족운동은 일본에서 전개된 재일한인의 독자적인 운동으로 국내 민족운동과 국외 다른 지역의 민족운동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재일한인 도일 이후 생성·발전·변화를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동시에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유학생의 운동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1910년대에 형성된 재일한인 사회는 유학생이 중심이었고,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유학생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1919년 2·8운동을 주도한 중심세력은 이후 국내와 일본에서 민족운동을 견인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20년대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노동자와 청년·학생이 투쟁을 선도했다. 특히 1920년대 초반 재일한인은 단체를 통해 조직적 역량을 길러냈다. 특히 1925년 이후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조직적 역량에 기초하여 통일적으로 전개되었다. 1920년대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당과 대중단체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통일적 조직에 기초해 대중운동이 발전했던 것이다. 이 가운데 유학생은 한 가운데 있었다.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1929년 이후 방향전환을 통해 발전의 길을 갔다. 재일한인 민족운동 세력은 1930년대 변화기를 두 가지 방향에서 맞이했다. 한 세력은 일본 사회운동의 한 축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다른 세력은 일본 사회운동과 거리를 갖고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이 변화기의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민족문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요구를 투쟁의 중요한 계기로 채택했다. 특히 강제연행기와 1940년대를 거치면서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강제연행에 대한 저항과 학생들은 청년운동세력과 함께 중심이 되어 반일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학생들은 소그룹적 형태로 끊임없이 조직을 재건해 갔다.

이상과 같이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단체들의 조직운동의 성과에 기초하여 생성·발전·변화되어 갔다. 이러한 재일한인의 민족운동은 생활적인 요구를 수행하는 조직에 의한 움직임부터 정치적인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 건 공산주의적 조직에 의한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재일유학생이 사상과 운동선 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